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5월 발행 (제 49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성전 붕괴' 예레미야

◎간증 '상한 마음' E3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성전 붕괴' 예레미야

오늘은 성전의 붕괴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종말의 예언은 성전의 붕괴에서 말해진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 장에서 종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기술된 도입 부분에 성전 붕괴에 관한 내용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4: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것은 종말에 대한 기술에서 성전 붕괴에서 시작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행 기사인 마르코와 누가복음도 함께 먼저 성전 붕괴 의 기사 에서 시작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붕괴라는 것은 종말의 날에 뭔가 의미있는 일, 특별한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성전 붕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건물, 예를 들어 학교나 사무 빌딩의 붕괴란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궁, 성전이 건설되었을 때의 설명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하고 훌륭한 건축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했습니다.

열왕기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궁전, 즉 성전의 의미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전 붕괴의 의미란?>

자, 그럼 성전 붕괴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실은 이것도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9:6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9:7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9:8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9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 버릴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던져버리는, 즉 붕괴 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에게 주었던 내 명령과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를 경배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경배 하게 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 배교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노, 성전이 던져지고, 붕괴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붕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 특별한 일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도 없다. 반대로 이것은 성전 붕괴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해 분노하시고 명확하게 심판하심을 단행한 표현입니다. 복음에 기록된 대로 "한 마리의 참새 조차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용서'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전은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결코 붕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성전의 붕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붕괴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공격 당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역대하 36:16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36:17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36:18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36:19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훼파하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타고 또한 성전 기구가 이방 땅 바벨론에 올라가지 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영광은 커녕, 매우 부끄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유다의 사람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도래한 것일까요? 그 이유로 성서는 "마침내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그 백성에게 쌓여 더 이상 치유 될 수 없을 때까지 됐다" 라고 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 불충실에 대해 하나님이 또 견디다 못해 분노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날 바벨론의 공격에 기인한 성전 붕괴는 의미가 있으며, 그 가장 큰 원인, 아니,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성전의 붕괴>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괴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님은 이날 헤롯 왕에 의해 40 년 이상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붕괴하는 일을 예언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는 돌을 무너 뜨리지 않고 쌓인 채로 남아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궁전이 철저히 붕괴하는 일에 대해 예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엄한 성전은 파괴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전에 바빌론의 날과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 배교 때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 사람들의 배교에 대해 다음의 농부와 비유하며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21:33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1:34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21:35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21:36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21:37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21:38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21:39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21:40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21:41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21:4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21: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농부의 비유처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주인에 의해 보내진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조차 죽이고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하여 로마에 의해 유린 되고 또한 궁전이 철저히 파괴 된 것입니다. 성전 붕괴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며, 그것은 신성 모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예언대로 이방인에 유린된 성전은 붕괴됐지만,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처절한 분노의 표현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 합시다.

<종말의 날의 가장 큰 사건은 성전 붕괴이다>

반복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24 장 소위 "종말 예언"을 말할 때 먼저 성전 붕괴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종말의 날의 중요한 열쇠인 것처럼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궁이 붕괴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심각히 이해 해야하는 것입니다.

되뇌이는 것 같습니다만, 성전 붕괴는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빌론의 성전이 붕괴될 때도 마찬가지로이며, 또한 로마의 성전이 붕괴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종말 즉 교회 시대의 끝과 관련하여 먼저 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신 그 취지는 무엇일까요?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말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배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교회 즉 신자에 있어서 그저 듣기 좋은 것만 언급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세의 교회의 배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 생각한다면 종말의 날 성전의 붕괴는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불신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비유>

그런데, 종말의 날의 성전 붕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현재 예루살렘에는 또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D 70 년에 로마에 의해 성전이 붕괴 당하고 이후 이 땅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으며, 건축물의 잔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주님이 말씀하신 궁은 지금은 흔적도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의 이해는 이러합니다. 붕괴한다고 예언 된 궁전이 지금은 흔적도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건물로 성전의 붕괴보다는 비유로서 성전의 붕괴에 대해 눈을 고정하게 말한 것과 같이 생각됩니다. 과연 궁전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건물의 성전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신약의 교회를 비유 한 것 같은 것입니다.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다>

주님은 성전 붕괴의 날에 돌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 복음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부분에 대해 위 에베소서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초석이라"고 말을 비추어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예언인 것을 알게됩니다. 그것은 교회 붕괴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교회의 토대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 더욱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예언서의 말씀, 오히려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마저 교회에서 제거되어 버리는 일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그 날,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본 되는 부분이 붕괴 한다는 끔찍한 예언이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이외에 구원이 없다는 가르침과,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도 죄의 용서 등의 가르침도 모두 교회에서 제거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종말의 말씀은 교회 붕괴의 날을 암시한다>

교회의 근본 교리가 붕괴 하는 일 등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것, 즉 종말의 날은 성전 붕괴, 즉 교회의 근본 교리가 붕괴 하는 날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사실 많은 종말

예언의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다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세상의 끝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 되기를 말해지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 날에 예수께서 구주가 아닌 특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그리고 교회에서 매우 선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험잡꾼, 컬트(이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자는 마치 옴진리교와 같은 컬트 신자인들로 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24:10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걸려 넘어 있을까요. 또한 다른 기독교인을 배신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날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붕괴 성경에 기록 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예수의 가르침은 다 '타짜'이고 사기라는 소문이 매우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걸림돌 올바른 걸음을 하는 기독교인을 배신하거나 밀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흘러지는 것처럼 많은 이상한 종말의 예언은 그날 성전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 교리가 전복 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때, 앞뒤가 맞고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께서 종말의 날에 관련하여 먼저 성전 붕괴에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불신, 불순종에 대해 매우 분노를 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토대와 근본인 교리, 가르침이 무너지는 일을 예언 한 것 같은 것입니다.

- 이상 -



성전 붕괴

오늘은 10년 전부터 웬지 신에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지만, 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도 많을까 생각합니다만, 괜찮으시면 말씀을 살펴봅시다.

참조 요한복음 5:39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최근,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라고. 그 때 위의 말씀을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이전 살짝 말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만, 나는 잠시 동안 교회와 신앙 생활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10년 전에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스도인의 행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시편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입니다.

참조 시편 34:18

34:18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눈을 고정 계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계시며, 게다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 했습니다. 뒤집으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 더 말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늘 나라는 위험한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행보 속에서 '상하다'라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소중한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으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지 입니다만 ... 다음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가 그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봐 주세요.

참조 요한복음 3:1-6

3: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밑줄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거듭나야" 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라고 있습니다. "물"과 "영"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타고난 좋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매주 예배에 가고 있으면 봉사를 해내고 있으면 .."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거듭나야"에 결정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에서 조금씩 분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으니깐. 그리고 "상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출생을 신으로 바꿔 주는" 것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디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이 점을 착안해 행보를 드리고 있었습디만, 지금 현재도 똑같은 설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마음과 귀와에 할례를 받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할례" 기독교인 평생의 테마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이라든지 큰 전도사라고까지 말해 않고도 메시지와 간증과 선지자를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치유의 은사를 사용 하는 사람이라던지가 하늘 나라에 초대 될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하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면 하는 이야기이지. "하늘 나라"는 들어가보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혹은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더라도 어찌면 들어가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 그야말로 "사람이 만일 온 세계를 손에 넣어도 참 생명 해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 생명을 다시 산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내밀면 좋을 것일까요. 나를 향해 "주님,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말로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날에는 허다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많이 행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에 내가 그들 이렇게 선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이루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라고 말씀이 있으므로, 여하튼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편리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모두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간증을 써 내려가는 가운데, 점점 그런 뜻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간증을 끝내고 싶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15)

항상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이상 -